

## 사라진 초록

글. 박영미 박건희문화재단 학예실장

2001년이었던가? 김병훈의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검은 톤에 갇혀 있던 동물들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의 인상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그의 동물과 식물에 대한 작업과 전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진들은 'Green'이라는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물을 소재로 한다. 작가는 색채와 공간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예술적 접근으로부터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500~700nm의 가시광선 파장 범위를 가지는 녹색은 흑백의 적외선 효과에 의해 흰색으로 바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디지털 처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을 상징하고,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녹색의 색채가 김병훈이라는 한 작가의 의식을 거치면서 무無를 의미하는 흰색 톤으로 드러난 것이다.

작가에 의해 일정 정도 왜곡, 변질 되어진 식물의 색깔은 전시가 열린 갤러리2의 전시 공간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 그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은 자연 조명 설계가 적용되어 천장 전체로부터 확산광이 내려온다. 마치 천장이 없는 듯 자연스러운 채광 효과가 작품이 걸린 벽면을 채우고 있고, 흠빛의 바닥과 기둥은 그와 어우러진다. 이 공간에 김병훈의 'Green'들은 마치 불박이 수족관처럼 스며들어 있다. 인간이 철저히 지배하는 건물이라는 공간에 인위적으로 재연된 자연적 채광, 그 안에 작가가 만든 비현실적 숲이 들어선 모습은 실재 자연과는 거리가 먼 세련된 인공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색채는 흑과 백이다. 마치 공상과학,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또는 꿈속에서나 나올 듯한 미묘한 장면이다.

흑백의 이미지는 사진이라는 매체로 인해 인간에게 사실을 인식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지 오래다. 흑백사진, 흑백영화가 자연 상태에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표현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회색 숲을 녹색의 이미지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작가가 제목으로 제시한 'Green'이 작품 자체에 존재하지 않고, 작가에 의해 들추어진 우리의 관념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은 전시 공간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약간의 당혹감과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 예술적 감상과 사고를 제안하고 있다. 색채와 함께 그가 식물의 생명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통로는 공간이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연구, 학습, 감상하기 위해 구축한 장소인 식물원에서 출발한다. 식물들을 촬영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을 선택한 사실은 작가적 관심이 자연 본연의 모습으로의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되는 과정과 결과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김병훈은 작가 노트를 통해 인위적 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순환과 순응의 과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생명 객체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사진 매체를 통해 갤러리라는 예술적 소통의 공간으로 전이된다. 이 전반의 과정은 마치 식물원의 구축 과정을 닮았다. 작가는 씨앗이나 묘목을 거두듯 카메라를 통해 식물의 모습을 채집한다. 그렇게 채취된 식물들은(장면들은) 잘 배양되고 가꾸어져(선택되고 조절되어)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갖추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감상과 향유,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적 재연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김병훈의 작품들은 소유와 지식에 대한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과 그 실현의 과정을 담고 있다.

색채와 공간에 대한 예술적 담론을 머금고 있는 'Green'은 다소 직접적으로 동물과 식물에 다가섰던 김병훈의 이전 작업들과는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느껴지는 것은 생명 이야기를 인간적 차원에서 승화시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과 식물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쫓아가는 여행의 다음 행선지를 기대하며 빛, 엽록소, 생명, 그리고 사라져 버린 색의 공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